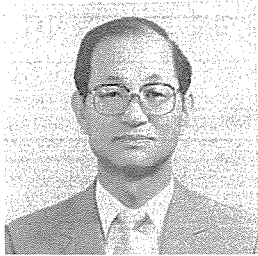


# “農業의 綜合的 연구개발 절실”

## — 農業과 社會발전



金 一 鐵

(서울大 社會學科교수 ·  
人口問題연구소 所長)

한국의 농촌과 농업은 전체 한국사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해간다. 여기에는 한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체계의 틈바귀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도전과 구축을 무시할 수 없다. 이리하여 대외적으로는 세계체계로부터 오는 영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한국사회가 이에 대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내부 조정이라는 이중적인 압력에 대응하면서 한국의 농촌과 농업은 변해간다. 농촌과 농을 중심적인 주체로 가정한다면 이 주체는 단순한 이중적 외부충격에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 농업이 옛날부터 축적시켜온 역사적인 주체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농촌과 농업이 역사적으로 전개시켜온 운동법칙(사회구조)은 위와같은 이중적 충격을 그 나름대로의 법칙으로 흡수·조화·조정·재편·거부시키는 것이다. 한국농촌과 농업이 개방화시대로 오면 올수록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충격과 압력은 커질 것이며 한국농촌과 농업의 역사적 주체성은 보다 큰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농촌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가운데 가장 분명한 세가지변화(인구, 생산, 경영)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조금 추상적인 것)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농가인구 구조의 변화

전체농가인구의 감소는 지난 20여년 간에 극적으로 일어났다. 현재의 농가인구는 겨우 900만명(총인구의 22.2%:1984)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농촌인구구조의 특성은 생산년령층과 앞으로의 농가의 주인이 될 청소년층의 급격한 감소와 장년층 및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농촌가족의 선택적 이농(연령층별, 계층별)과 가족분산현상을 말해준다. <표-1>에서 보는 것같이 1965와 1984를 비교해 볼때 14-19세층이 13.1%, 그리고 20-29세층이 11.1%감소하였고 40대 이상은 8%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농가가족의 거의 반은 비동

거가족원을 취업, 교육, 군복무, 기타목적으로 도시에 가지고 있는 분산가족형태를 취하고 있다(표-2참조).

〈표-1〉 農業就業者の 年齡別 構成比 變動推移 (1965~1984)

年齡區分	構成比				
	1965	1970	1975	1980	1984
年齡別					
14~19歲	15.4	14.4	13.0	5.1	2.3
20~29	25.5	18.2	17.4	15.4	14.4
30~39	21.8	25.7	21.7	19.3	18.1
40~49	19.1	21.6	21.7	28.1	27.7
50~59	13.4	13.9	17.8	21.0	23.3
60歲以上	4.9	6.3	8.5	11.0	14.2
性別					
男	61.7	58.4	58.5	56.2	57.3
女	38.3	41.6	41.5	43.8	42.7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허신행: 한국 농업의 성장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101쪽에서 인용.

〈표-2〉 비동거 가족원 유무

구분	응답자수	구성비(%)
비동거 가족원 있음	490	49.0
비동거 가족원 없음	472	47.2
무응답	38	3.8
계	1,000	100.0

자료: 박민선, “농촌가족구조의 변화와 농업생산”  
농협조사월보, 1986. 12에서 재인용.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1965-1984년 사이에 한국농업의 생산구조는 대폭 변화를 가져왔다. 곡물전체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대신 우유, 육류, 계란, 소채, 수산물등 고급농산물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이런 것은 식품의 소비형태가 곡류중심에서 소채, 과일, 축산물과 같은 고급식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변화는 농업조수입의 형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곡물농업에 의한 조

수입이 80%를 차지했던 것에서 이젠 53%로 격하되고 그대신 소채, 과수, 특용작물, 축산에서 조수입의 거의 50%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농업내부의 생산구조의 변화와 함께 농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적인 하락을 가져왔던 것이다(농업, 임업, 어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의 39.1%에서 1983년의 13.9%로 감소되었다).

◇농업경영구조의 변화

한국농민의 농지소유 및 경영규모는 토지개혁 실시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이유야 어떤든 자작농의 구성비는 1985년 현재 35.3%밖에 되지 않고 있다(표-3참조).

자작농의 감소는 1970년대의 말에서 198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자작농의 감소는 새로운 소작형태의 경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특히 자작겸소작경영농가의 압도적 다수현상은 한국농지소유제와 경영구조의 일대 위기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농업 및 농촌사회의 위기와 관련된다.

농지소유와 경영규모의 변화를 농가계층별로 보면 농가수준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0.5ha 이하의 영세농가가 대폭 감소하였고 0.5-1.5사이의 농지경영이 서서히 증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농가수입의 유형도 변화하였지만 농가의 지출형태도 급격

〈표-3〉 농지소유형태별 농가구성(%)

년도	구분	자작농	자·차농	순임차농	계
					千號
1945		14.1	40.1	45.8	100.0(2,019)
1949		37.4	41.4	21.2	100.0(2,474)
1950		92.0	8.0	-	100.0(1,970)
1974		68.4	27.8	3.8	100.0(2,269)
1983		40.2	56.9	2.9	100.0(1,948)
1985		35.3	62.6	2.1	100.0(1,880)

자료: KREI 「농지제도 및 보전에 관한 조사연구」1984.  
장종천 “농지문제의 현상과 임대차관리방향” 농협조사월보, 1986. 9에서 재인용.

히 변화했다.

◇기타 분야의 변화와 종합적 접근

이상과 같은 매우 분명한 세가지 큰 변화의 흐름과 함께 농촌사회의 각 분야에서도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농업은 그 자체가 생활방식으로서 자급자족적 생계농업에 국한하였지만 자본주의 발전에 맞추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경제적·상업적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따라서 폐쇄적인 그리고 숙명적인(?) 생활공동체 내지 자급자족적 생산공동체가 도시산업과 개방적 경쟁을 통해 생존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농가는 전통적인 그리고 관습적인 생산기술, 생산요소, 경영기술만으로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게 되고 새로이 발전되는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농업으로 경제적·상업농업에 대처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각 농가는 보다 새로운 기술·지식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농촌사회는 농업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도시통근인구, 은퇴인구, 휴양인구, 교육·연구인구, 기타 산업인구가 다같이 생활하는 장으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4〉 농촌의 변화

농업	: 생계농업	→ 상업농업
문화	: 정(情)의 문화*	→ 경쟁의 문화
기술	: 자연농법	→ 기술농법(지식농업)
사회구조	: 폐쇄형 생활공동체	→ 개방형 산업공동체
이념적중심	: 봉건주의	→ 자본주의
농촌구성	: 농업중심	→ 생활중심
조직체	: 마을중심	→ 농가이익중심(전문화)

\*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7. 21-30쪽.

과거의 마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정많은 가족 혹은 공동체로서 농가의 개별적 특성이 부각되기 보다는 마을 전체의 전통, 관습, 문화의 공동수호자로서 모든 것을 마을 중심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각 농가의 특성과 이익이 분화·전문화되면서 소속단체, 활동, 연결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

뻔하다. 각 농가의 직업, 생산품목, 취미 가족구조와 상황등이 훨씬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표-4〉와 같다.

위와같은 약간 복합적인 접근을 보다 평이하게 그리고 보다 많이 알려진 산업화, 도시화, 관료제화라는 단순화된 세가지 큰 변화의 물결로 다시 요약하여 이것을 먼저 한국사회전체의 변화와 관련시켜 보면 〈표-5〉와 같다. 이것은 농촌과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전체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체질개편이며 이것의 여파가 한국농촌을 강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표-5〉 한국사회의 재구조화의 과제

변동의 방향	산업화	도시화	관료제화
재구조화 원리	복합적 총화	문화적 이질성	조직화
생활세계 현상	격차의 정당성 문제	문화적 단절	통제의 강화
구조적 모순	적대적 소통	소외와 불안	집권화
구조적 처방	극복의 신념	문화적 공감대	분권화

자료: 김일철 “한국사회의 재구조화의 사회적 소통”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7. 124쪽에서

위와같은 한국사회전체의 재편성방향에 맞추어 농촌사회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그 대략적인 방향을 〈표-6〉과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표-5〉와는 이론적으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농촌에 국한된 고찰에서 보다는 앞의 논문이 쓰여진 때와 지금의 필자입장이 약간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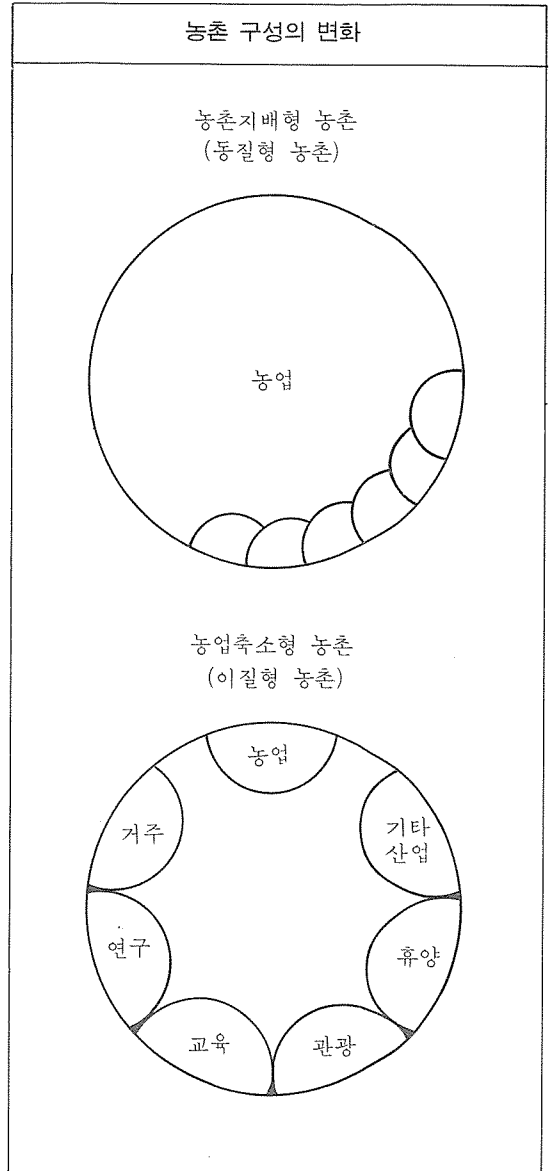
무엇이 농촌인가?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모여사는 곳이 농촌이었다. 아직은 과학기술의 단계가 경제적인 농산물생산처는 농토에서 주로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농토가 많고 이에 종사하는 농민이 많이 모여사는 곳이 농촌이었다. 그러나 농토와 농민이 적은 농촌이 생겨나는 것은 그리 먼 장래가 아닐 것 같다. 농토는 있되 상업

적 농업생산보다는 관광, 휴양, 연구를 더 큰 목적으로 삼고 농민이 직업이 아니라 농촌에 살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일, 혹은 농업과 타산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는 농업을 전업으로 삼는 농민만이 살던 곳에서 이제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농촌이 농업과 농민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각종 이질적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썸이면 농촌의 개념과 구분도 훨씬 복잡적이어야 할것이다. 예를들면 농업과는 관계없는 교외통근자들의 소규모주거공간(교외촌락), 은퇴, 관광, 휴양을 목적으로 삼는 소규모 마을, 연구·교육을 주로하는 마을, 논마을, 밭마을, 산마을, 소마을, 돼지·닭마을, 농산물가공마을, 은퇴자마을, 예술가마을, 군사마을, 행정·서비스마을 등등 여러가지 상상과 발전의 방향에 따라 여러가지 촌락과 마을의 출현을 점쳐 볼 수 있다.

위와같은 농촌의 전망은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으나 지금 한국농촌의 변화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적어도 위와같은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조짐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 농업과 농촌은 점점 도시·산업사회와 밀착되어 자본, 기술, 정보, 사회, 문화에 의한 일체화가 촉진될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도시·산업사회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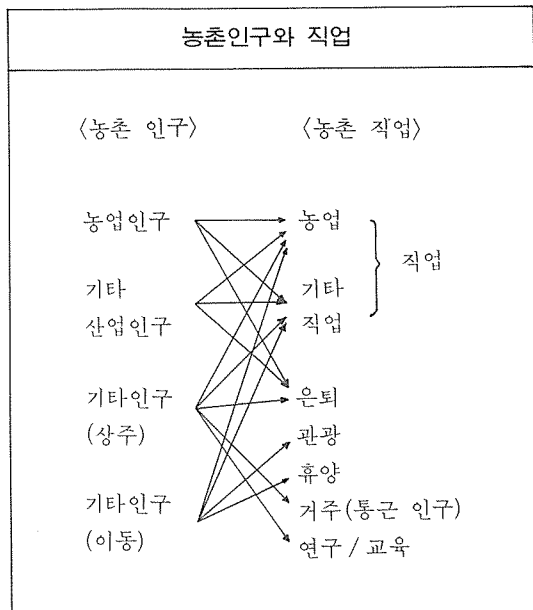
〈표-6〉 농촌사회의 재구조화와 과제

변동 방향	산업화	도시화	관료제화
재구조화원리	농촌공업화 산업에비교 과학화 상업화 특화농업	이농 농촌도시화 이질형농촌 개방화	조직화 (전문화)
생활세계 현상	경쟁	개인주의 물질주의	계약/협약 (조직체생활)
구조적 모순	불평등	비인간화 향토의 퇴색	조직체 경쟁
구조적 처방	격차 축소 균형발전	농촌(농민) 공동체운동	협동(수평) /조정



지배권이 확대·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농업과 농촌의 현재는 그 대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첨단적·선진적 변화는 아직 일부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산업사회의 확대발전과 균형을 맞추는 공공정책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시대에 왔다. 과거에는 농촌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도구적( )이었다. 농촌은 농업생산을 하는 곳



이고 농업생산은 도시인구에 대한 식량공급기지에 불과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범위에서 농촌의 가치를 부여코자 했다. 도시산업성장 우선정책에 의한 이러한 불균형 성장 정책은 농촌과 농업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시켰고 그 결과는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에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격차와 불균형을 낳게 만들었다. 농촌과 지방은 새로운 변화과정에서 거의 버려진 배후지대였다. 농촌과 농업에 관련된 여러분야에 대한 투자, 연구, 그리고 교육등은 전연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농업기술 및 과학의 엄청난 발전으로 농업이 가지는 전통적인 식량공급원으로서의 가치자체도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유전공학과 각종기술의 발달로 농산물이 단순한 자연생산물이 아닌 과학기술산물로 변화하고 이에 대한 도전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와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만 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공장과 공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한계점에 와 있다. 농업생산자체도 과학·기술과 접목되지만 그의 경영, 가공, 그리고 유통도 점차 과학화 되어야만 할 단계에 와 있다. 일반 산업도 농촌과 농민

을 포섭해야 하고 농업자체도 타산업과 점차 그 관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에 결하여 도시자본은 농촌과 농업에 침투되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여태까지의 발전은 농촌과 농업을 일단 제외한 것이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발전의 심화로 인해 이제는 농촌과 농업을 동원·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통합적·총체적 발전의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환시대에 있어서 농민조직역시 전통적이며 폐쇄적인데서 보다 개방적이며 근제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친목, 가정의례, 씨족간의 단합, 교육, 부락공공사업등(일차적이익)보다는 농업생산, 가공, 유통, 경영, 판매, 종교, 사상, 생활방식과 같은(이차적이익) 혹은(개별적이익)을 중심으로한 자율적 공공조직의 탄생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이익의 분화 내지는 전문화)이다. 이에 따라 농민조직역시 농민의 각종 이익과 활동에 맞추어 다양하게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자율조직이 필요하게 되며 농민의 이익을 농민스스로가 협동하여 얻어내는 능동적 조직은 다가오는 분권화와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초조건이 된다.

끝으로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점차 필요하게 되는 것이 고향(향토)을 매개로 한 과거와 미래의 연결이다. 농촌에서 출생한 1세대와 농촌에서 출생하여 도시로 옮겨간 1.5세대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농촌을 전연 모르는 도시 2세대가 대부분을 점유하게 될 때가 불원간에 올 것이며 이때는 시골의 고향을 거의 상실한 세대가 될 것이다. 도시의 고향은 극심한 변화속에서 보존되지 못할 것이며 농촌고향만이 그래도 얼마간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고향없는 세대〉의 출현을 의미한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없고 自我의 출현을 과거의 연속선에서 목격할 수 없는〈도시방랑아〉들이라 할 것이다. 인간다움의 연결성, 다정함, 자연과의 밀착을 경험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숲속에서 자라며 자연속에서 공동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 것이다. 말하자면 뿌리없는 도시세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이 가지는 자연, 푸르름, 마을생활을 어떻게 하면 전진적 의미에서 보존·유지할 것인가가 커다란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다. 고향은 조상을 갖게 할뿐 아니라 인간윤리와 도덕의 원천인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은 곧 고향이며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① 농촌사회구성의 변화, ② 농촌·농업의 과학화·전문화, ③ 농촌과 농업의 전체사회와 전체산업과의 연계성증대, ④ 농촌 및 농민조직의 전문화·자율화, ⑤ 향토보존의 필요성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앞으로 닦쳐올 농촌과 농업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라 생각한다.

### ① 농촌의무교육 확대

앞으로의 변화에 대처하는 주인공은 농민이다. 농민스스로가 보다 현명하게 또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여러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知的格差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의무교육화 시켰으면 한다.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박탈의 위치에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많은 농민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키는 의미도 있으며, 또 앞으로는 인간이 똑똑해야만 농업도 과학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교훈도 줄 겸 농촌의 고등학교까지를 모두 의무교육으로 전환시켰으면 한다. 이들 고교졸업생이 얼마간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농촌부흥을 위해 농민에게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것은 필요할 것이다. 농업이 점점 고급기술화되고 있으며 그 경영, 판매, 유통, 조직, 가공등 기술분야에서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스스로의 몫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도 농민의 지적능력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간다고 보겠다. 필자는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농민교육제도의 실시는 가장 중요한 인간개발의 기초과제로 생각하고 싶다. 이것은 농촌과 농업발전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 ② 농업기술연구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수출산업에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고려한다면 농업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인류전체의 생존과 관련시켜보나 가장 중요한 투자부문이라 생각된다. 인구폭발, 산업공해, 국토협소, 자연조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신재배기술, 신농약, 신비료개발, 신사육기술, 가공기술, 육종기술, 산지개발 등 농업기술의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이것이 한국농업 및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할 수 있다. 농업과학 기술의 발달은 농업기술연구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고급 인력양성에 주력하는 것을 말한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발달이 앞으로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농업기술연구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정책의 수립은 한국농업과 농촌발전의 사활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농민, 농촌 청소년, 부녀자, 농촌관계 공무원, 관련단체직원들에게도 새로운 농업기술교육의 강화와 보급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 ③ 농업 및 농촌사회 하부구조에 대한 장기투자 계획

국민총생산에 대한 농업의 비중은 하강하더라도 전체 국토의 균형적활용, 2000년대를 위한 지역사회 주거지 및 산업공간, 그리고 산지이용을 전제로한 국토계획, 농업 및 농민보호를 위한 기반시설 현대화등을 전제로 한 농촌지역에 대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농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차원을 넘어 2000년대를 위한 농촌현대화를 위한 보다 거시적 차원의 투자를 의미한다.

### ④ 농민의식과 농민조직의 활성화

농민도 이제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시골양반의 기침소리같은 부르짖음만을 할때는 지났고 이젠 농업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교육, 정보, 조직(협동) 등을 적극적으로 쟁취하지 않으면 낙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농업만큼 경쟁이 없는 안이한 산업은 없었

다고 할 것이다. 이는 농업이 직업이 아니었고 단순한 생활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농민 스스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보다 경쟁적이며 과학적인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변신을 강요해야 할 때다. 정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생취하는 방향으로 농민의식의 변신과 함께 농민조직역시 변신할 때가 왔다. 노령 인구나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영세농이 세습화하면서 농촌자체가 빈곤의 영속화의 악순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농민의 능동적이며 전진적인 변신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경쟁에 낙오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더있지만 농촌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은 정부가 하지만 기회포착을 어떻게 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농민조직은 농민전체가 불공평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항상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며 농민 각자가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보호와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⑤ 과학적인 향토운동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갖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긍지와 자력갱생의지를 심어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부족했던 점 두가지는 첫째, 농업근대화 및 농촌 기반사업 조성을 끝마무리 하지못했고, 둘째는 농민의 현대적 직업의식을 정착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두번째 문제는 농민조직의 자율적기반조성의 실패와 직접 관련된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의 평균소득향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2000년대라는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계획을 염두에 두고 농촌을 자랑스런 우리 뿌리로서의 향토라는 미래지향적이며 과학적인 시각이 부족했던 것이다.

농업과 농촌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점진적인 정책과 투자가 일어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주택, 도로,통신, 문화, 교육, 의료·보건생활 등의 조건이 농촌생활에<적절하게>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도시와 꼭같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소득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정부가 아닌 농민스스로가 주체가되어 일으키는 농민운동으로서의 향토운동은 농촌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 모두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 맺 음 말

농업과 농촌의 변화는 세계체제와 국내조건외의 도전과 맥을 같이한다. 변동과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다. 농촌과 농업의 현대화에는 정부 정책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농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민이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민스스로가 보다 능동적이며 과학적인 변신을 할때가 왔다. 농민은 서로 협동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촌발전을 도구적 시각에서 기획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농업을 보다 인간적이며 근원적 시각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과학이 가지는 엄청난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변화를 예의 검토·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농업과 농촌에 관한 종합적연구가 빨리 일어나야 할 것이다. 기획원, 농수산부, 문교부, 과기처, 보사부, 상공부, 문화공보부 등의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농촌과 농업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농촌을 더이상 농업생산으로만 국한시킨 좁은 시야를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소농경제를 특성으로 하는 한국농촌에 부합한 개발모형이 개발돼 나가야 할 것이다.

과 학 진 흥  
 \_\_\_\_\_  
 \_\_\_\_\_ 기술 입 국 \_\_\_\_\_